

 보건복지부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참 고 자 료</h1>			
배 포 일	2020. 6. 1. / (총 11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홍 승 령 윤 민 수	전 화	044-202-3575 044-202-3804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과 장 담 당 자	김 태 경 김 형 주		044-200-5250 044-200-5253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담 당 자	김 정 숙 김 성 철		044-202-3155 044-202-361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격리지원반	팀 장 담 당 자	이 병 철 전 종 형		044-205-6511 044-205-65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전국 해수욕장 개장대비 준비상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 ▲전국 해수욕장 개장대비 준비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5월 28일(목) 이후 확진 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히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2주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지금 우리에게 생활 속 방역수칙 실천이라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며, 고용주와 근로자,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자신의 공간에서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하였다.

1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접촉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서울시는 등교 수업에 따른 유증상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선별진료를 5월 20일(수)부터 실시하고 있다.
 - 6월 3일(수) 추가 등교에 따른 교내 확진자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유증상자 등교 전·후 검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 인천시는 관내 사찰 149개소를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사항, 실내행사 자제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5월 30일)하였고,
 - 소규모 종교시설에 대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등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홍보 활동도 계속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대규모 문화·체육·관광 및 종교시설 1,859개소*의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 불교·기독교 등 종교시설 724개소, 코인노래연습장 1,097개소, 볼링장 14개소, 당구장 21개소, 물놀이 종합 유원시설업 3개소

- 경기도 소재 기업체에 대하여 섣다운 사전 예방을 위한 진단 (폴링) 검사 지원을 추진한다.

2 전국 해수욕장 개장 대비 방역 관리 준비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해수욕장 개장 대비 방역 관리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부는 6월 1일(월)부터 7월까지 예정된 전국 267개소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하여 이용객 안전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배포**하였다.
 - * (6월 1일) 부산 해운대(7월 1일 개장 예정이었으나, 최근 방문객 증가로 안전관리를 위해 임시운영), 송정 개장, (6월 6일) 태안 만리포 개장
 - ** 해양수산부에서 5월 26일 배포한 보도자료 ‘국민 대표 피서지 해수욕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참고
- 정부는 해수욕장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해수욕장 이용 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시·도, 시·군·구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방역 상황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반과 방역 당국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 대응반은 방역 당국이 신속하게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더불어 조기 개장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운영대응지침’의 현장 실행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요 해수욕장 (약 60개소) 대상으로 개장 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시·군·구 해수욕장 관계관 회의(6월 2일~6월 9일)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대응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관할 보건소 주관하에 해수욕장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또한 정부는 해수욕장 이용 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할 예정이다.
- 이용객 분산을 위해 대형 해수욕장 보다는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을 권고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 * 해양수산부 및 각 시·군·구 누리집에 해수욕장 정보(전년도 이용자 수, 숙박시설, 연계 관광 정보 등을 포함) 안내 예정(6월 15일 ~)
- 해수욕장 이용 시 기업, 학교, 종교단체, 지역 동호회 등 단체방문을 자제하고, 가족 단위 이용을 권장한다.
- 백사장과 물놀이 구역 등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실천해야 한다.
- 백사장에서는 햇빛 가림 시설은 2미터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과도한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 물놀이 시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사용하고, 샤워시설 이용 시에는 한 칸 떨어지기, 관리사무소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에는 발열 검사, 손 소독, 방문기록 작성 등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물놀이 구역에서는 침 뱉기 자제 등 타인을 배려하며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종사자들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노력을 강화하고, 개인위생과 소독을 철저히 하며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종사자별 준수사항]

- (운영자) 발열검사소 운영, 해수욕장 거리 두기 홍보 및 지도, 이상 상황 감지 노력 및 조치, 소독·방역 점검 등 종합적 관리
- (안전요원) 마스크 착용 근무, 교대 근무 시 발열검사, 안전시설 관리
- (청소인력) 청결 유지, 쓰레기 집하장 및 다중이용시설(화장실, 샤워시설 등) 관리
- (수탁자) 다중이용시설, 대여물품(튜브, 파라솔, 비치베드 등) 등 수탁시설 관리

3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5월 31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1,310개소, ▲결혼식장 77개소 등 총 16,606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36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특히 전라남도는 결혼식장·종교시설 등 88개소를 점검하고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5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다.
-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종교시설 11개소, 유원시설 2개소, 유흥시설 31개소 등 총 59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과정에서 종교시설에는 소모임 등 자제를 요청하였고, 유원시설에는 공동 이용시설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안내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904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178개반, 654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538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1,366개소 중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12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 현재 15개 시·도 15,985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5월 31일)까지 위반업소 80개소를 적발하여 67개소는 고발하였고, 11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 5월 31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7,81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92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888명이다.

- 3,725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114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11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5월 31일)는 무단이탈자 1명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례가 적발되어 고발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82명이며, 이 중 70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84개소 2,84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3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5월 31일) 입소 216명, 퇴소 19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66명

-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법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10.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홍보자료

붙임1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붙임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